

나의 화상

고대 에 인간들이 불로
인해 타락과

비행을 일삼자 이를 언짢게 여긴
제우스신이 인간들로부터 불을
▶앗아 버렸다던가. 그러자
프로메테우스가 궁리끝에 향나무
줄기를 들고 천상에 올라가 불을
불여 몰래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들에게 불을 나누어 준 것이
오늘날 불의 근원이라던 신화가
떠오른다. 그때부터 인간들에게는
불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나의
생애 또한 불의 추억으로
얼룩졌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의 삶에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불에 대한 추억이 촘촘히
박혀 있는가 하면 나의 마음
한복판에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멍에같은 불에 대한 추억도 몸에
각인된채 살아가고 있다.

불에 대한 풍경이 땀뻘
떠오르는 것은 고향 앞바다의
정경에서부터이다. 나의 아름다운
고향, 전라남도 남서부에
자리잡은 해남은 푸른 포말로
상징지어지는 벽파진(碧波津)이
있는 곳이어서 어린시절부터
먼바다에서는 불발한
화선(火船)이 한조가 되어
그믐사리하는 전경은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그뿐인가. 사위가
온통 칠흙같은 밤에 유령처럼
서성이며 불밝히며 날아다니는
반딧불을 보고 처음엔



오 문 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도깨비라며 무서워하다가
나중에야 반딧불임을 알고, 그
오렌지색의 불꽃을 달고
날아다니는 반딧불에 반해, 어느
동화에 나오는 요정이라도
되는양, 겁없이 그 불빛을 따라
쫓다가 논바닥에 굴러 떨어진
일들. 그뿐이라, 무더운 한여름
모기를 쫓는다고 목은 잡초를
불태우며 그 맵고 답답한
연기속에서 잠자던 일. 학교에서
밤늦게 돌아오다 우리집 마당
가득히 불빛이 빛나는 것을 보고
오늘이 바로 제삿날이라며
좋아하던 일. 이런 술한 불빛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그 사연은
한없이도 많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불에 관한
추억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다. 언젠가 동네 뒷산에
이름모를 산불이 났을때의
무서운 추억도 가지고 있다. 크고
검은 산들이 삼시간에 다

타버리고 마을까지 내려오면
어찌나 하고 발을 구르던 일.
불은 산등에서 들러붙어
마을앞까지 화기가 흑흑
불어왔다. 산 입구 ▶끔히 들어찬
자작나무에 까지 불이 번져
타닥타닥 튀던 그 불길들. 온통
마을사람들이 삽과 갈고리를
들고 나무를 잘라 쓰러트리며
불길을 잡던 모습들.
화광중천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동네 노인네들은
젊은이들의 불끄는 방법이
못마땅한지 「마치 불난 강변에



덴 소 날뛰듯 우왕좌왕 한다며
혀를 차며 안달하던 모습들도
떠오른다.

불이란 이렇듯 면도날처럼
양면성이 있었다. 인류문명의
원동력인 불의 고마움을
차치하고라도 불은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있음을 나는 내가
직접 체험한 몇가지의 과거에서
역역히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세살되던
해였다고 한다. 한 여름밤,
어머니는 나를 곁에 잠재워 두고
친정집 나들이에 입고 갈 옷을

다렸다고 한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날밤 다리던 옷을 또렷히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몇가지 옷을 다렸기도 하거니와
그날 벌어진 일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리라.

그때는 숯불을 담아 쓰는
재래식 다리미였다고 한다.
그날밤 문제는 다리미판에도
있어 보였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피우던 화덕의 장작이 타면서
기어나와 부엌바닥에 어지럽혀진
나무 부스러기에 옮겨 붙는 것을
보고 화다닥 놀라 다리미판에

다리미를 올려 놓은채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 나가 부지깅이를
찾아들고 불을 끄고 있는데 곧
자지러질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다.

낡은 다리미판의 천에 불이
붙어 내가 덮고 있던 흙이불에
까지 옮겨 활활 타고 있더라는
것이다. 황급히 불붙은 이불을
마당으로 던지고나서 나를 안고
읍내로 달려갔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말로는 한달 이상을
읍내 의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때의 화상으로
어린 온몸이 열담에 들뻤으며
얼굴마저 충혈되어 눈도
진무르고 나중에는 목도
잠기더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차라리 당신 몸이 불에 데었으면
데었지, 세상천지 화상자국은
못보겠더라는 말씀이었다. 더구나
여자아이 몸에 화상이니 더더욱
큰일이라며 불에 덴 자리에서
나는 열기를 씻으려고 몇밤을
세우며 의원에서 타은 알콜이며
얼음물로 열을 식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별반 크게 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화상은 차츰
나이들면서 벚꽃처럼 번져
지금도 오금 안쪽에서
종아리까지 물이 흐르듯 상처를
만들고야 말았다.

나는 그 화상으로 인해 이제
나이 사십 중반에 세아이의
어머니가 되도록 수영복 한번



입어보지 못했고 짧은 스커트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내가 결혼하던날 친정어머니가
사위될 내 남편손을 붙들고
딸아이 종아리 훑터는 당신
잘못이니 흠 잡지말라며
남정네란 결혼하고나서는 눈감고
살며 아내 훑터를 보더라도
훑보는 법이 아니라던 말씀이
지금도 떠올라 나혼자 웃곤한다.

이처럼 불은 좋은 종이지만
그러나 나쁜 주인이라는 옛말과
같이 아직도 불에 대해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많다.

누군가가 모든 비운속에서
가장 큰 불행은 옛날에
행복했었다라는 말이라던가. 바로
그 주인공이 나의 어릴적
소꿉친구였던 경자였다. 우리
시골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경자. 마을에 정미소며
양조장까지 가지고 있던 부자집
외동딸 경자에 대한 추억도
잊혀지지 않는다. 일제시대
때부터 돈이 많아 오빠들을
일본까지 유학시켰던 그런
집이었다. 경자 역시 시골을
벗어나 목포시로 나가 명문
여고를 다녔다. 그러던 경자네가
정미소에 화재를 당하고는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어져
버렸다. 정미소에서 일어난 불은
등등한 기세로 옆에 잇달아 있는
양조장까지 휩쓸었다. 양조장뿐만

아니라 바로 옆 가게집까지
삼켜버렸다. 그 당시 나는
『병어리 삼룡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대목처럼 불은 마치 피문은 살을
맛있게 살라먹는 헛바닥처럼
날름날름 거리며 집한채를
삼시간에 먹어치웠다. 그렇게
고래등 같던 경자네 정미소며
양조장은 하루아침에 숯덩이같이
꺼멧게 타버렸고 엇가락처럼
구부러진 기계와 녹아버린
드럼통 몇개 뿐이었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형클어진
머리로 땅을 치며 통곡하던
경자엄마의 얼굴. 불을 낸
집이어서 다른 가게집까지
배상해줘야했기 때문에 결국
집터까지 내주고는 고향을
떠났던 경자네 식구들. 학교
졸업하면 일본에 유학가서
음악을 전공하겠다고던 경자.

그러나 그후 경자는 학교를
그만두고 광주리를 이고
목포시의 어느 시장터에서 삶과
씨름하는 것을 보았다는 풍문만
들릴 뿐 그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불에 대해선 신나는
추억도 가지고 있다. 국민학교
3학년시절 6·25 사변때의
일이었다. 고향이 남해안의
섬이라 뽕죽히 다른 곳으로 피난
갈 염두도 내지 못하고 온가족이
섬에만 묻혀 있었다. 그러던

섬마을에 목포까지 침범했던
인민군들이 한밤중에 범선을
이용해 우리마을까지 잠입해
들어 왔다는 소문이 왜바람처럼
삼시간에 마을을 휩쓸었다. 고향
앞바다에 정박중이던 우리
해군함정이 한밤중이면 어김없이
섬 앞을 가까이 운항하는 것을
노린 것임에 틀림없었다. 섬에
오자마자 해안에 구덩이를 파며
박격포를 바다로 향해 설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속셈을 알아 차렸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입에서
입으로 귀동냥한 끝에 마을 뒷산
어린진포구 뒤 심산에 올라가
놈들 몰래 봉화불을
피우자고했다. 어른들은 놈들이
알세라 쉬쉬하며 아이들은 일찍
문잠고고 자라며 방안으로 몰아
넣었지만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쿵뒹뒹 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른들 몰래 방을
빠져나와 마당안 장독대 뒤에
숨어 심산쪽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기다리자 킁킁한
산봉우리쪽에서 불빛이 비치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백일홍같이
새빨간 불꽃이 박꽃처럼 점점
크게 피어 오르더니 드디어는
커다란 햇불로 높이 솟아 올랐다.
나는 신이나서 손뼉을
치고싶었으나 참았다. 그날밤
섬의 앞바다는 아무일 없이
지나갔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근해에 정박중이던 함정이 햇불을 보고 뭔가 의심쩍어 항로를 바꾸어 운항했다는 것이다. 그 햇불 때문에 적의 포사격을 면했다고 해군함장이며 장교들이 나중에 섬에 들려 술잔치도 벌렸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는 살아생전 두고두고 자랑하셨다.

나는 이처럼 몸에 지닌 화상이 있는가 하면 즐거운 추억도 가지고 있다. 옛말에도 불에 놀란 아이는 평생 불을 두려워 한다지만 나는 집만 옮기면 화재보험에 들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재앙에 대비하고 있다. 지금 이사는 아파트의 첫 반상회에서

불은 좋은 종이지만 그러나 나쁜 주인이라는 옛말과 같이 아직도 불에 대해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많다.

공동으로 보험드는 문제를 내가 처음으로 거론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사온 다음날 청계천에 들려 소형소화기를 구입,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아이들에게 몇번이고 그 위치며 사용방법을 확인시켜 주곤 한다. 「넌 불이 나면 무엇부터 찾는다고 했지? 「소화기지 뭐, 그러다가 소화기 닳아 없어지겠네」 이런 질문으로 아이들에게 소화기의 위치를

일깨우곤 한다.

칠순을 넘으신 어머니도 나의 종아리에 난 흉터라도 보는 날엔 게으른 여편네가 부엌바닥 깨끗하게 치우지 못해 내대신 네가 별받은 상처라며 남이 알면 우썬거리라고 말소릴 낮추곤 하신다. 아이들도 엄마의 상처를 보고 화재예방 전시장이라며 놀려댄다. 그런 딸에게 나는 내가 커서 집을 사서 시집가면 화재보험증서를 혼수대신 주겠다고 함께 웃는다. 그런 날이면 나는 아이들의 귀에 대고 나죽이 속삭인다. “꺼진 것 같이 보이는 불도 실은 재밑에서 잠깐 쉬고 있으면서 우리집의 행복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